

제1차 ESCAP통계위원회 참가결과보고서

2009. 3

통 계 청
국제협력담당관

〈제 목 차 례〉

1. 회의개요	1
가. 회 의 명	1
나. 기 간	1
다. 장 소	1
라. 참가현황	1
마. 우리 청 참가	1
바. 주요 의제	1
2. 회의 일정	2
3. 주요 회의 내용	3
가. 의장단 선출	3
나. 통계위원회 권한위임 사항 및 기능관련 주요결정사항	3
다. 기타 주요 권고사항 및 결정사항	4
4. 주요 의제 요약	5
가. 아·태지역에서의 통계발전	6
나. 통계발전을 위한 지역 내 기술협력	9
다. 성인지 통계의 개선	12
라. 아·태지역에서 경제통계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15
마. 사회발전의 측정	17
5. 우리 청 발언내용	20
가. 지역 내 기술협력	20
나. 연간 인구추계	22
다. 사회발전 측정	23
6. 참고자료(의제검토)	24

1. 회의개요

가. 회 의 명 : 제1차 ESCAP통계위원회

(ESCAP committee on Statistics, First session)

나. 기 간 : 2009.2.4. ~ 2.6.(3일간)

다. 장 소 : 태국 방콕 유엔컨퍼런스센터

라. 참가현황

- 33개 회원국(31개 정회원국, 2개 준회원국)
- 1개 비회원국
- 17개 국제기구

마. 우리 청 참가 : 2명(박경애 국제협력담당관, 윤종호 사무관)

바. 주요의제

- 통계위원회 위임사항과 기능협의
- 아태지역 통계발전 협의
- 통계발전을 위한 지역 내 기술협력
- 성인지 통계
- 경제통계
- 인구추계 관련 토의
- 사회발전 측정

2. 회의일정

구 분	월 일	시 간 대	주요내용
1일차	2.4.☞	08:00-08:45 09:00-09:30 09:30-10:30 10:30-10:45 10:45-12:00 12:00-14:00 14:00-15:45 15:45-16:00 16:00-17:00	등 록 개 회(개회사, 임원선출, 의제채택) 통계위원회 위임사항, 기능 등 협의 Coffee break 아태지역의 통계발전 오 찬 지역 내 기술협력 Coffee break 성인지통계의 개선
2일차	2.5.☞	09:00-10:30 10:30-10:45 10:45-12:00 12:00-14:00 14:00-15:00 15:00-15:15 15:15-16:15 16:15-17:00	아태지역에서 경제통계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Coffee break 연간 인구추계 생산 오 찬 사회발전 측정 Coffee break ESCAP총회 제출 결의안 및 결정 협의 기타 사항
3일차	2.6.☞	10:00-12:00 12:00-14:00 14:00-16:00	통계발전에 관한 포럼 오 찬 통계위원회 보고서 채택

3. 주요 회의내용

※ 세부 회의 자료는 웹사이트 참조(<http://www.unescap.org/stat/cst/1/index.asp>)

가. 의장단 선출

- 의 장 : Mr. Rusman Heriawan(인도네시아)
- 부의장 : Mr. Ma Jiantang(중국), Mr. Birlik Mendybayev(카자흐스탄),
Mr. Brian Pink(호주)
- 서 기 : Mr. Pronab Sen(인도)

나. 통계위원회 권한위임 사항 및 기능관련 주요결정사항

- 통계위원회를 보좌할 의장단(Bureau) 설립
- 구 성 : 의장(통계위 의장 겸임), 부의장(3명), 회원국(3)
- 역 할
 - 통계위원회 주요기능수행 보좌(ESCAP통계국 관리포함)
 - 통계위원회를 대표(의장 또는 의장단의 참여)
 - ESCAP, UNSC 결정 및 결의안에 대한 입장표명 고려
 - ESCAP사무국의 위원회 어젠다 설정지원
 - 실무그룹, TF 및 기타 필요조직 설립에 관한 권고안 제시
 - 의장단의 조치, 제안관련 위원회 보고
- 기 능
 - 주기적으로 협의실시
 - 의장단 활동관련 ESCAP에 예산부담 없음
 -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아래의 활동추진 권고
 - ESCAP 타 위원회의 통계이슈 지원
 - 국제통계프레임워크, 분류, 기준 및 통계우선순위관련 지역 공통 입장 제안
 - 아태지역 통계발전 검토 및 분석

- 사무국에 타 국제기구와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지침제시
- 공식통계 기본원칙 준수 촉진
- 지역 내 기술지원, 연수, 교육, 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 규명
- SIAP에 연수원칙, 우선순위 등 관련 권고

다. 기타 주요 권고사항 및 결정사항

【권고사항】

- 아·태지역 통계발전과 관련 사무국에서 회원국간 통계정보 교환과 통계역할 촉진을 위한 지역 내 평가프레임워크 준비
- 회원국에 SIAP 재정지원(특히, 현금기여금) 증액을 요청
- 연구·분석과정을 포함한 SIAP연수과정 증설과 원격강의 확대권고
- SIAP과정 및 내용에 관한 회원국들의 건설적인 제안 요구
- 연수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지가 해당부처에 수신될 수 있도록 노력 권고
- 연 단위 인구추계와 관련, 의장단에서 보건당국, 등록담당 및 통계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 조직가능성 검토를 권고
- 등록제도가 빈약한 국가들의 생명통계 작성 대안검토 권고
- 사회발전 측정과 관련 OECD주도의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글로벌프로젝트의 아시아지역 중추적 역할 가능성 검토권고

【결정사항】

- 아·태지역 경제통계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개발, 실행 및 모니터링을 관장할 지배구조 채택
- 경제통계 발전프로그램의 개발, 수정관련 방법론적 이슈에 대해 조언할 기술자문그룹 설립

4. 주요의제 요약

의제3 아·태지역에서의 통계발전-----	6
의제4 통계발전을 위한 지역 내 기술협력-----	9
의제5 성인지 통계의 개선-----	12
의제6 아·태지역에서 경제통계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15
의제8 사회발전의 측정-----	17

의제3 : 아·태지역에서의 통계발전

□ 현 황

- 개도국의 통계역량구축 축진은 통계발전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 PARIS21은 증거기반 정책결정문화와 모니터링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개발 지표의 국가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국가통계발전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통계에 관한 마라케쉬 행동계획은 국가적 요구와 국제적 책임에 관한 6가지 조치를 발표
 - 저 소득국 통계개발을 위한 통계시스템 전략기획 정비
 - 2010 센서스 준비
 - 통계역량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 국제 가계조사 네트워크 구축
 - MDG 모니터링 향상
 - 국제통계시스템의 신뢰향상
- 원조효과성에 관한 빠리선언 및 제3차 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국제 라운드 테이블회의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은 원조의 수행과 관리에 있어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통계발전 지원확대를 요청
- 현재 추진 중인 국가발전 프로세스나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아태지역의 국가통계시스템 발전을 촉진. 많은 국가들이 양자나 다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국가개발파트너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

□ 통계제도 발전의 조건

- 동 보고서는 아태지역 통계발전 검토를 위해 작성되었고, 제40차 유엔통계 위원회에 제출예정
- 현 보고서에서 통계발전은 통계역량구축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 이는 통계 시스템 내 주요 요소를 강화시키는 것임. 이런 요소는 효과적인 통계시스템

개발 및 유지에 필요한 조건

- 전제조건 : 법, 제도적 환경, 자원 및 품질관리
 - 정직 : 프로페셔널리즘, 통계자료 수집, 생산, 배포에서의 윤리적 기준 및 투명성
 - 방법론의 적절성 : 국제기준, 가이드라인 및 국제비교 강화를 위해 합의된 관행의 적용
 - 정확성 및 신뢰성 : 적절한 자료원, 통계기법, 평가 및 검증지원
 - 서비스가능성 : 적절성, 적시성, 적절한 주기 및 자료의 일관성
 - 접근가능성 :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명확성, 이용가능성, 이용자 지원의 적합성
- 현 보고서에서 통계발전 현황을 두 부문에서 분석 1) 제도적 발전, 2) 통계역량. 제도발전은 아태지역 NSDS과정으로 평가. 통계산출물의 이용가능성과 품질을 지역 내 통계역량의 지표로 사용. 세계은행의 통계역량지표(SCI)를 사용 전반적인 역량평가
 -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통계기관의 책임을 규명한 법제도가 존재하나 여러 통계기관 간 조정의 부재가 애로를 초래. 거의 절반가량의 ESCAP국가에서 NSDS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남, 북, 중앙아시아가 타 지역에 비해 국가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음

□ ESCAP의 통계발전 검토

- SCI를 기준으로 볼 때 ESCAP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및 케리비안의 중간에 위치. 북, 중앙아시아가 통계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소득과 SCI사이에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이용가능성이 자료수집이나 통계관행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통계보다 사회인구통계 분야에서 더 높은 역량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
- 경제통계 현황검토를 통해, 다수의 ESCAP국가들이 GDDS나 SDDS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개도국에선 ESCAP지역이 가장 높은 SDDS채택수준을 보임. 많은 국가들이 시작 첫해에 채택을 하였고 지난 십여년간 충분한 발전을

이런 나라들은 거의 없음. GDDS와 SDDS가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현재 GDDS채택국가들의 도전과제는 SDDS로 전이하는 것이고 미 채택국가의 경우 그 프로세스와 통합되는 것임

- 국민계정에서 볼 때, 소득수준이 역량과 강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계정의 이용가능성은 중간 또는 고소득 국가에서 높게 나타남 또한 다른 분야나 MRDS 요구조건이 복잡하여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국은 소수에 불과
- 사회 인구통계관련 MDG결과는 반대로 저소득국에서 높게 나타남. 이 점은 자료수집과 지표생산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줌. 소득과 가계조사 실시와 생멸 등록률 간 상관관계는 양의 값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태평양 연안 섬나라들은 보고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통계제도 발전, 전반적인 통계역량 및 경제 및 사회 인구통계 분야 등에서 타 지역에 뒤떨어져 있음

□ 검토의 의미

- 본 연구의 결과는 도전과제 뿐만 아니라 기회를 지적하기 위함. 서로 다른 국가의 통계역량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전통적인 지원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이외에 남-남 협력을 촉진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마지막으로 통계활동 및 산출물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평가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그런 평가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임

의제4 : 통계발전을 위한 지역 내 기술협력

□ 현 황

- 그간 아태지역 국가들은 적시에 신뢰할 만한 통계생산을 위한 국가통계 시스템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커다란 진전을 이룩
- 그러나 아직 많은 도전과제가 남아있음. 아직까지 많은 개도국에선 기본적인 통계생산에 애로를 느끼고, 일부 국가들은 개정 기준이나 방법론 적용에 필요한 연수나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통계프로그램

- ESCAP은 통계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국제통계기준의 개발 및 실행, 국가통계기관의 역할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 내 강력한 추진세력
- 통계프로그램의 전반적 목적은 증거기반 정책결정에서 통계의 활용증가 및 주요 인구, 사회, 경제 및 환경통계의 개발과 배포 촉진임
- 연수기능은 SIAP이 수행
- ESCAP통계국 재편 : 결과지향 서비스 요구수용을 위한 전략분야의 변경 (통계개발 및 분석과, 데이터지원 및 배포과)

□ 기술협력을 통한 통계발전 : 제안전략

- 각 국가별 수요에 근거한 기술협력프로젝트의 개발 및 실행을 통한 통계발전의 촉진으로 방향 전환
- 지역 내 국제기구로 ESCAP은 지역의 관점과 국가수요를 제기하면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지원

① ESCAP의 상대적 우위

- 광범위한 포괄영역

- 고위급의 전략적 개입을 위한 지역 내 포럼
-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규범제정
- 회원국 공통의 소요제기
- 다양한 회원국의 참여

② 통계발전프로그램의 원칙

- 지역 내 실정을 감안한 국제기준의 활용촉진
- 정책수요에 대응, 긴급 기준개발 요구분야에 중점을 둠
- 파트너십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영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통합접근
- 프로젝트 참여국가에서 지역전체로 확대

□ 국제표준의 장려 및 역량구축 : 최근의 경험

① 센서스를 통한 역량구축

- 2006년 말, 통계국은 통계역량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SCAP지역 센서스 프로그램을 제안
- 센서스 프로그램은 또한 UNSC의 2010센서스 지원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함. 36차 세션에서 지역의 요구에 맞는 전체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

② 비공식 부문 및 비공식 고용의 측정

- 개도국내 상당비율의 사람들이 비공식 부문에 고용되어 있으나 객관적이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자료가 없는 실정
- 통계국은 유엔개발계정지원 프로젝트를 발굴 '07-'09 사업 년도에 수행

③ 장애측정 및 통계의 개선

-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통계는 미 발전
- '08년 4월 20개국의 장애통계 생산자와 사용자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

④ 마이크로데이터 문서화 촉진

-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설문, 센서스 자료들이 적절히 문서화되어 보관

되고 있지 않고 연구자들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은 상태

- 통계국은 'global accelerated Data program'의 일환으로 아태지역 마이크로데이터 접근개선 공동프로젝트를 추진 중(7개국 기술지원 제공)

⑤ 통계발전을 위한 전략기획 지원

- 최근 통계국은 마라케쉬 행동계획의 지원 하에 다른 공동기술협력 프로젝트에 관여
- 대부분의 ESCAP 통계역량구축사업이 국가통계기관의 조직발전에 간접 영향을 미치지만, 동 프로젝트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⑥ MDG모니터링을 위한 자료개선

- 통계국은 또한 MDG 달성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한 통계의 개선도 촉진
- ESCAP은 또한 ADB, UNDP와 공동으로 MDG달성을 향한 진전 모니터링을 위해 국가통계역량 강화 지원방안 모색 중

□ 향후 추진방향

- 확장과 집중사이의 균형
- 지원역할과 핵심기능사이의 균형
- 서로 다른 통계영역 지원에서의 균형
- 국가통계기관 및 기타기관의 참여
- 지역통계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 각 국가 UN기관과의 조정
- 지속가능성
- 영향의 평가

의제5 : 성 인지통계의 개선

□ 현 황

- 여성폭력 측정 지표개발 과정은 최근 몇 년 동안 일대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총회와 사무총장은 글로벌 어젠다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성폭력 근절을 정하였으며 동 자료는 여성폭력에 대한 지수의 정의에서 최신의 평가를 포함하고 현황을 조명하기 위함

□ 아·태지역에서 여성폭력의 측정

- 여성폭력의 정의
 - 성에 기반한 폭력으로 공과 사를 막론하고 신체적, 성적, 정신적, 박해, 강요와 자유의 박탈을 초래하는 결과 또는 결과의 개연성이 있는 행동
- 여성폭력의 심각성 중 하나는 폭력이 단지 외부환경에서만 발생되지 않고 자료수집이 쉽지 않다는 것임
- 여성폭력 대한 다양한 연구는 글로벌 차원에서 수행되어왔으며, 아·태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도 수행되었음
 - WHO 주도 여성의 건강과 가사폭력의 연구('00~'03)
 - 국제적 범죄 희생 조사 프로젝트
 - 가정폭력과 결혼기간 동안 여성폭력 연구(남아시아)
 - 인도 가정건강조사('05-'06)
- 문화, 종교, 전통 등이 다양한 지역에서 유사한 정의와 기준적용이 곤란하며, 데이터수집에 있어 민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와 관련 공동체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음

□ 여성폭력 데이터 수집관련 이슈

- 행정 또는 범죄기록 통한 여성폭력 데이터 수집은 헬스센터, 경찰서, 공익서비스, 주거와 그리고 법률가 또는 법률서비스를 통해 수집

-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고려할 이슈들은 조사방법과 인터뷰 모드, 설문지의 길이, 신뢰와 보안, 낮은 응답과 응답편향 등

□ 여성폭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평가 경과

- '05년 UN여성권익향상과 주관 전문가 그룹미팅에 참석
- '07년, UN여성권익향상과, ECE, UNSD는 UN지역위원회의 협력으로 제네바에서 여성폭력측정을 위한 지표 전문가 그룹미팅 조직
- '08년, 제52차 UN여성지위위원회와 제39차 유엔통계위원회의 연합회의에서 여성폭력관련 FOC(Friends of the Chair group)를 설립

□ FOC지표와 권고안

- 육체적 폭력
 - 지 수 : 작년 한 해 동안과 일생동안 육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
[동 지표는 심각성(덜 심각함/가혹함), 가해자(절친한 사람/인척관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권위자), 빈도(한번/몇번/여러번)로 구분]
 - 검토의견 : 다의적 의미의 해석여지 있고 폭력의 정의와 가해자의 빈도, 심각성, 형태를 심사숙고할 필요성 있음
- 성적 폭력
 - 지 수 : 작년 한 해 동안과 일생동안 강간/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
[동 지표는 가해자(절친한 사람/인척관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권위자), 빈도(한번/몇 번/여러 번)로 구분]
 - 검토의견 : 성적폭력의 형태의 정의와 관련하여 FOC 멤버들은 동 지수는 성적공격의 모든 형태를 명확히 나열해야한다고 제안
- 절친한 파트너의 폭력
 - 지 수 : 작년 한 해 동안과 일생동안 전 파트너 또는 현재의 파트너에게 육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
[이 지수는 빈도(한번/몇 번/여러 번)로 구분됨]

- 검토의견 : FOC 멤버들은 절친한 파트너의 폭력이 육체적·성적 폭력과 연결되더라도 별도의 지수로서 의미가 있다는데 동의
- 위험한 관습
 - 지 수 : 성기를 절단한 여성의 비율과 18세 이하의 결혼 여성비율
 - 검토의견 : FOC 멤버들은 더 많은 지수의 개발을 제안
- FOC의 추가제안
 - 스토킹을 포함한 정신적, 감정적 학대를 지수로 제안
 - 가정소득 또는 상속, 재산상 법적지위, 고용기회의 제한과 같은 경제적 폭력과 금융적 침해와 연관된 지수를 제안
 - 강제결혼과 어린신부유괴를 제안

□ 결론 및 권고안

- 여성폭력관련 포괄적인 국제지수의 발전은 결론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수집된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기반 하나,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제기구가 이 업무를 주도
- 현재의 상태는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발간을 위한 책임기관이 필요하고, 국가통계기관은 기술적 숙련도와 신뢰성, 합법성을 바탕으로 여성폭력을 측정하고 수집하는데 핵심역할을 해야 함.
- 국가통계기관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며 통계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서 여성폭력관련 데이터 수집의 시스템화와 지속성을 추진해야 함
- 또한 여성폭력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의제6 : 아·태지역에서 경제통계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 현 황

- '08. 2월 제39차 유엔통계위원회는 2008년 국민계정시스템(이하 2008 SNA)의 Volume1을 국민계정의 새로운 국제기준으로서 승인하고 경제 통계의 통합 틀/framework로서 국민계정시스템의 역할을 재확인
- 동 문건은 아태지역에서 1993년 SNA의 이행이 늦은 주요이유를 평가하고 국민계정과 경제통계의 증진을 위해 개도국 지원 전략수립을 위함

□ 국민계정과 경제통계

- 사용자들은 경제통계가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기를 기대하며 통합경제 통계는 하나의 개념적 틀로서, 통계적인 불일치가 없이 정의되기를 기대함
- 경제통계의 통합은 3개 부분의 통합이 필요 : 수평적, 수직적, 시간적.
 - 수평적 통합 : 다양한 기초통계의 조정
 - 수직적 통합 : 기초통계와 거시경제/국가통계와 국제통계 조정
 - 시간적 통합 : 같은 경기 국면 내 다른 시점의 단기경제통계와 구조 경제통계 간 조정
- SNA의 주요 계정은 생산, 소비, 자본 구성, 생산요소들에 대한 수입의 분배와 수입의 사용을 측정하는 것임.

□ 아·태지역에서 1993SNA의 이행과정

-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통계의 현황은 두 가지 틀을 준수하는 지의 기반 위에 평가될 수 있음
 - ISWGNA(국민계정에 대한 국제작업그룹) 제안 '국민계정 모니터링 틀'과 '데이터품질 평가 틀(DQAF)' 임
- 2007년 1993 SNA를 이행한 회원국은 63%

□ 아·태지역에서 경제통계의 발전을 위한 지역적 행동계획 전략

- 2008년, ISWGNA(국민계정에 대한 국제작업그룹)는 유엔통계위원회에 2008 SNA이행을 위한 전략제출
-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통계와 국민계정 발전의 부재는 유능한 직원과 유용한 데이터자료의 부족에 의해 야기
- 기본 원천자료의 부족은 재원이슈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문제임
- 지역프로그램의 성공은 관련 파트너국가·기관들의 재정발굴 및 재원조달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기금설립 노력은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향후 추진전략

- 아태지역에서 1993 SNA의 이행에 관한 평가와 경제통계발전의 지역행동 계획을 위해 제안한 전략의 재검토
- 아태지역에서 1993 SNA의 이행에 방해되는 요인분석
- 경제통계의 발전을 위한 지역 활동계획의 준비관련 전반적인 전략 승인 및 타임테이블을 제안
- 기술 자문그룹 설립

의제8 : 사회발전의 측정

□ 사회발전 측정의 중요성

- 정보는 경제와 정치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하며 사회의 평안과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투명하고 유용한 방법론의 활용은 근거기반 정책결정을 촉진
- 이 과정에서 통계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영향력을 갖기 위해선 통계가 적절해야 함
- 지난 10년간 사회발전 측정에 많은 관심이 표출되었고 발전지표 개발 이니셔티브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옴. 2008년 프랑스 사르코지대통령은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 측정위원회를 설립, 위원장에 조셉 스티글리츠를 임명
- 사르코지대통령은 GDP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측정하는 현재 시스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을 강조하였으며 이런 지표들이 사회적 평안의 측정 자료로 적절한지에 대한 회의가 커지는 것이 현실.
- 사회발전 측정에 많은 접근이 가능하나 대체적으로 3가지 카테고리(사회 환경측면까지 포괄하는 국민계정제도의 확장, 경제, 사회 환경측면 관련 광범위한 지표의 활용, 평안, 삶의 만족, 행복의 주관적인 측정의 활용)

□ 이스탄불 선언

-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인지 OECD는 통계, 지식, 정책에 관한 제2차 세계포럼을 개최(터키 이스탄불, 2007.6, 130여개국 1200명 참가)
- 동 포럼에서 이스탄불 선언을 채택했고 동 선언은 21세기 환경에서 발전의 의미 규명, 사회발전 및 발전의 비교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통계적 자료와 지표에 근거한 국제적 논쟁의 촉발을 요청
- OECD는 국제기구와 협력, 발전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의 설립을 결정(주요이슈에 대한 안내, 국제무대에서 토론의 활성화)하고 동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설립으로 귀결

□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

- 발전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므로 발전이 그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 안전, 인권,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서로 공감하고 있지만, 발전이 어떻게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공감이 덜 이루어져 있는 상황.
- 통계정보를 활용, 정책입안가나 시민들이 그 사회에 관한 보다 나은 지식을 갖도록 새로운 도구나 접근법의 개발 촉진
- 글로벌 프로젝트는 합동 이니셔티브로 사회발전 측정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그룹이 학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의 역할 수행하고 있음
(주요 파트너로는 OECD, 세계은행, UNDP, UNICEF, 미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ESCWA 등)
- 글로벌 프로젝트의 중점추진 과제
 - 통계연구
 - 통계의 지식전환을 지원하는 ICT 툴의 개발
 - 홍보 및 추진체계 구축
 - 발전의 측정과 촉진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의 개발
- 글로벌 프로젝트는 제2차 포럼이후 추진력을 얻었고 몇몇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니셔티브(호주, 헝가리, 캐나다, 모로코 등)에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

□ 아·태지역에서 발전의 측정

- 세계는 인구나 경제경장을 볼 때 세계발전의 경로가 상당 부분 아시아 지역의 발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
- 많은 아·태 국가들이 이미 발전 측정 이니셔티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i.e. 부탄의 국민총행복, 국제총행복(Gross International Happiness)]

- 3차 세계포럼 한국 부산개최계획(2009.10.27.-30.) 130개국 1500명 예상
- 사전회의도 개최예정으로 그중 중요회의는 3.23.~24.교토대학에서 개최될 회의임. 동 회의는 OECD와 교토대학 공동주관으로 지역 내 국제기구, 대학, 재계, 재단 등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발전에 관한 광범위하고 공유된 비전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
- 2010년 개최될 제6차 아·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각료급 회의에선 경제 성장의 질에 관한 이슈, 자원효율성 및 새롭게 창출되고 변화하는 직업 등의 이슈를 다룰 전망

□ ESCAP과 글로벌프로젝트

- 차기 2회의 세계포럼이 아시아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ESCAP은 지역 내 경제, 사회 및 관련 통계이슈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재 설립된 통계위원회는 지역 내 프로젝트의 중추기관이 되어야 할 것
- 지역 내 필요시 연수과정 운영을 위해 SIAP에 접촉창구 개설하였으며, 작년 여름과정이 인기가 있어 금년 동일한 과정 추진예정

□ 위원회 요청사항

- 사무국에 포럼의 기획 및 운영을 관장할 과학위원회에 위원을 지명, 파견하여 제3차 OECD세계포럼 개최관련 협력가능성 검토제안
- ESCAP의 글로벌 프로젝트의 공식파트너 수락제안
(파트너는 글로벌프로젝트 집행이사회 이사며 프로젝트나 세부프로젝트 운영의 책임을 짐)
- 아태지역 글로벌 프로젝트 이행의 중심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차기 2개년도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제안

5. 우리 청 발언내용

Agenda Item 4 : Regional technical cooperation in statistics development

On behalf of the KNSO, I would like to comment on ESCAP & SIAP activities and then introduce Korea's recent experiences. The objective of this brief report is to provide ESCAP & SIAP with ideas to improve technical cooperation.

The KNSO believes that various initiatives implemented by ESCAP and SIAP have been valuable in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among members of ESCAP and should be continued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raining courses provided by SIAP have contributed greatly to building statistical capability in many developing nation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and many of them still heavily rely on SIAP for their training. We especially appreciate Japan's generous contributions.

The policy direction of some countries toward ODA (Official Development Aid) with anticipations of reducing funding to SIAP raises concerns among member nations and region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ike. As such, the KNSO believes that member states should strive to increase their contributions to SIAP. At this time, the KNSO cannot commit to increasing its contribution to SIAP. However, it will endeavor to persuade the budget ministry to contribute more to SIAP in the future.

Next, the KNS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echnical cooperation with nations in the region and has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to promote cooperation. It built bilateral cooperation relationships with many Asian countries to discuss statistical issues facing each agency and explore effective solutions to their issues.

As study visit requests increased tremendously, the KNSO invited study tour delegations from several countries. Their topics included issues such as housing price index, IT, data-dissemination, and agricultural statistics.

In addition, the KNSO conducted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project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close cooperation with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Last year, four projects were conducted for Asian-African statisticians and Iraqi officials.

It is my recommendation that ESCAP and SIAP improv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more effective training, workshop, and capacity building.

Agenda Item7 :

Producing population estimates on an annual basis

Korean vital statistics is essential for producing annual population estimates. Completeness of birth and death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on causes of death are two pillars for producing better statistics. Currently, Korean birth and death statistics are complete. In the past, however, almost two-thirds of infant deaths were under-reported under the civil registration system. To improve under-reporting problems of infant deaths, the KNSO began to collect, evaluate, and integrate related administrative data, such as cremation data and health reports, etc. As a result, coverages of births and deaths are complete.

However, the accuracy of reported causes of death(COD) remains a challenging matter. Nine percent of all deaths was given their causes of death by non-professionals, primarily because of deaths outside hospital and our cultural preference or avoidance for certain causes of death. This leads to higher proportion of ill-defined deaths. To obtain more reliable COD statistics, the KNSO has two approaches.

First, the KNSO conducts intensive reviews of all kinds of administrative data related to COD.

Second, Trained COD coders perform telephone interviews on a continuous basis with the relatives of the deceased, care-givers who reported the COD of the deceased died outside hospitals.

In short, administrative data and in-depth inquiry and research could provide supplementary measures to the civil registration system for strengthening vital statistics.

We are going to continue to invest every effort in improving vital statistics, while being involved in collaboration work with other countries facing common challenges.

Agenda Item 8 :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Korea would like to support various efforts on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The leading attempt by the Asia-Pacific region to define the real progress of society represents an implication that the Asia-Pacific region wishe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by overcoming side effects resulting from the previous development which focused only on economic growth.

In this context,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the Gross National Happiness of Buthan, and Phillipine's Happiness Index are highly encouraging and welcomed. This demonstrates that the Asia-Pacific region is playing a leading role in taking momentous initiatives on societal progress.

Korea also has been putting efforts into developing sets of comprehensive indicators covering not only economic aspects but also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se ideal practices for measuring progress are anticipated to be highlighted at the third OECD World Forum which will be held in Korea.

So, I would like to encourage member countries of ESCAP to participate in the 3rd World Forum and recommend that ESCAP officially collaborate with OECD for implementation of Global Projects.

참 고

의제4 : 지역 내 기술협력 의제관련 검토의견

- 우리 청은 ESCAP회원국의 통계역량 구축을 위해 그간 진행되어온 ESCAP과 SIAP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의미 있고 향후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음
- 특히 SIAP연수과정은 그간 아시아 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아직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SIAP연수과정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최근 일본정부의 기여금 축소움직임 등으로 SIAP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SIAP의 재정확충을 위해 회원국들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
- 기여금 증액이 우리 청만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청은 SIAP기여금 증액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임
- 우리 청은 지역 내 국가들과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인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 우선, 아시아 지역 몽골, 베트남, 태국, 이란, 중국, 일본등과 양자협력관계를 구축, 교류를 통해 다양한 통계현안과 과제를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음
- 또한 각국 통계청의 협조요청을 수용, 연수단을 초청 각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통계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지난해 몽골통계청에서 주택가격 지수 산정을 위한 연수단과 IT연수단이 우리 청을 방문한 바 있고, 말레이시아 통계청에서 농업통계분야 연수를 위해 우리 청을 방문한 바 있음
- 우리 청은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통계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08년 총 4건의 프로젝트를 진행(개발도상국 통계역량강화 사업1건, 이라크 공무원 통계역량강화사업 3건). 금년에도 우리 청은 KOICA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통계역량강화사업 1건, 몽골통계공무원 역량강화사업 1건 등 총 2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

의제7 : 연간 인구추계 생산

① 보다 나은 출생, 사망 및 사인 자료를 위한 틀 및 솔루션(CST1-6E)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이 1991년 전산화되면서 인구동태통계의 정도가 제고되기 시작. 현재는 누락율이 1%이하

또한 인구동태조사를 위한 현지 입력시스템을 1997년 개발하여 사용 중이며 2007년부터는 새로 개선된 시스템으로 입력하여 집계시기도 단축

② 생명통계 및 사인통계의 개선 - 태국의 경험(CST1-6E)

태국은 사망등록의 완전성 평가조사와 구술부검을 통해 실제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대규모 리서치를 통해 사망원인통계 향상을 위한 최선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시민등록체계에 의해 인구동태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의 사망원인통계의 현황과 과제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한국은 출생과 사망등록이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2007년 사망 등록 완전율 99.1%). 그러나,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모든 사망자의 사인이 의학적으로 증명되거나, 국제사인분류(ICD)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2007년에 총사망자의 91.1%는 의료인에 의해서 사망원인이 명시되었지만 나머지 사망자의 사인은 사망사실을 신고한 친족들에 의해 부여. 이는 신고 된 사망원인이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 신고 된 사인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은 10개 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보건기관의 의료기록이나 법의학기관의 부검자료와 같은 행정 자료들에 대한 집중적인 리뷰를 수행. 또한 통계청은 불명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훈련받은 원사인분류사가 사망자의 친척이나 보호자에게 전화 조사도 실시.

한국이 고품질의 인구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는 이중적인 법적체계에 있음. 시민등록체계는 대법원 관할이고, 주민등록부는 행정안전부 소관. 반면

에 인구통태 및 인구통계의 생산은 통계청이 주관. 이것은 주민등록자료가 시민등록자료 또는 센서스 자료에 의해 완전히 자동적으로 갱신되진 않고 있음을 의미. 통계청은 태국이 시민등록자료와 센서스 수치를 이용해서 하나의 인구추정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방법과 태국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인구변동조사 (SPC)가 인구통태통계 생산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태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희망.

의제 8 :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검토의견

1. 아·태지역에서 사회발전측정의 중요성

- 아·태지역은 전세계 면적의 40%를 차지하며, 세계인구의 61%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GDP가 약 16조 10억 불로 전세계의 57%에 달하고 있어 전 세계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중국 및 ASEAN 국가 등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태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진정한 사회 발전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는 것은 기존의 경제위주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염원을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의 “호주발전측정(MAP)프로젝트”와 부탄의 “국민총행복(GNH)”은 아·태지역에서 사회발전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발의를 이끈다는 데에 있어 매우 환영할만하고 고무적인 내용임
- 한국측 역시 경제지표만이 아닌 사회, 환경 등 발전측정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표 개발을 위하여 현재 노력하고 있음

2.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소개

- 2005년 3월 한국에서 개최된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에서 한국은 환경과 경제개발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조만간 ‘녹색성장위원회’라는

싱크탱크가 발족될 예정이며, 전 정부부처와 기업, NGO 등 각 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 UNESCAP과 한국은 2005년 서울이니셔티브를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아·태 지역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태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기를 희망함

3. 제3차 OECD 세계포럼의 한국 개최 의의

- 한국에서는 내년 10월 27일부터 30일 4일간 '통계, 지식, 정책'에 관한 제3차 OECD 세계포럼을 개최 예정임
- 동 세계포럼이 비유럽국가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고, 4차 포럼 또한 인도에서 개최되는 것은 아·태 지역의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제3차 포럼에서는 진정한 사회발전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정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므로 UNESCAP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바임
- 동 포럼의 사전 준비 성격의 회의로 내년 3월 23일~24일에 일본 교토에서 아시아 지역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아태지역의 발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UNESCAP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바임

제5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가보고서에 나타난 여성부 의견

1. 수석대표 기조연설(2007. 3.1)

-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국제사회가 1990년 세계아동 정상회의 및 2000년 유엔 아동 특별총회결과 이행에 있어 미진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여아에 대한 차별과 폭력철폐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제반정책 및 성과를 아래요지로 소개함
 - 1991년 아동권리협약 비준을 통해 여아와 남아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 보장
 - 여학생의 고정적인 성역할에 따른 진로 선택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남학생이 점유하던 법률,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여학생 진출 장려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
 -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방지 위한 획기적 전기 마련
 -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여아에 대한 인신매매사범에 대해서는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
 - 2006년에는 여아에 대한 성폭력 대책으로 여아에 대한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구속수사원칙 등 마련

2. 고위급 원탁회의

- 2007.2.26 오후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철폐”를 주제로 열린 고위급 원탁회의에서 장관은 여아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전 사회적 인식확산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우리정부의 관련 정책을 소개함
 - 2000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구분하였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긴급전화 1391를 설치하고, 아동학대예방

센터 39개소를 전국적으로 운영

-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해바라기센터라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을 포함한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 심리상담, 수사법률 지원 등을 one-stop으로 처리